http://dx.doi.org/10.15207/JKCS.2015.6.6.255

융합 계열간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자아존중감간 상관연구

박소연[1], 박경영[2*]
[1]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2]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So-Yeon Park[1], Kyoung-Young Park[2*]
[1]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2]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간에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포함한 대학생 651명으로 생명윤리의식과 자존감에 대해 2015년 5월 2주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은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은 대학생이 생명의료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생명의료윤리 인식을 비교한 결과 생명공학을 제외한 안락사, 뇌사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제어** : 생명의료윤리, 생명의료윤리 인식,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 교육, 보건계열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f correlation of characterist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to compare bio-medical ethics perception between health science and non-health science undergraduate students. We investigated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of 651 undergraduate students including health science students and non-health science students for two weeks in May,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bio-medical ethics. The higher self-esteem, the more important bio-medical ethics. But i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bio-medical ethics about brain death, euthanasia except biotechnology.

•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Biomedical ethics perception, Self-esteem, Biomedical ethics education, Health science undergraduate students

1. 서론

생명의료 윤리란 인간과 환경 속에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된 응용윤리의 한 분야이다[1,2]. 이러한 생명의료윤리는 의료인과 환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존엄사, 줄기세포연구

*교신저자 : 박경영(reliance80@hanmail.net)
접수일 2015년 10월 1일 수정일 2015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와 유전자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한 연구윤리까지 포함한다.

급변하는 의료상황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들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의료 윤리적 갈등상황에 노출되며,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현재 보건계열에 속한 간호,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갈등상황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마주하게 되어 혼란을 겪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3], 윤리관이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보건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추후 보건의료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과정에서 체계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윤리적 가치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종교, 연령, 성격유형 등의 요인이 생명의료윤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6,7]. 뿐만 아니라, 임상간호사의 경우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은 대상자들이 직무만족도와 간호업무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간호사의 간호업무 성과는 자존감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그 외에도 자존감은 음악치료사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0].

그런데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말하며[11],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12]. 이지원과 강경희의 연구에서도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높아지고, 우울감 또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윤리의식과 자존감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교직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1], 자존감과 직업윤리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건분야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자존감에 대한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의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5년 현재 충남 지역에 위치한 H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4학년 학생 651명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계열의 4개 학과와 비보건계열 4개학과의 협조를 얻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부를 배포하였으나, 조사당시 실습 중이거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4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651명(회수율 93%)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과의 협조를 얻어 전공교수의 강의시간 전, 후에 실시하여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18일부터 5월29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설문지는 이영숙[14]이 개발하고 최보람[15]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완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생명윤리 관련 특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자존감 척도로 구성하였다.

2.2.1 생명의료윤리 의식 설문지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3문항과 생명의료윤리 의식 29문항의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인공임신중절 6문항, 안락사 12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6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최보람[15]이 보고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28 이었다.

2.2.2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1]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척도로서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환하여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윤리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생명의료윤리 인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인식차이는 독립 t 검정과 일원산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생명의료윤리 인식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51명이었으며, 이중 남자는 22.6%, 여자는 77.4%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작업치료학과 25.2%, 간호학과 20.3%, 항공관광학과 13.2%의 순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 종교별로는 무교이거나 기타에 속하는 경우가 56.4%이고, 다음으로 기독교가 27.8%로 높게 나타났다.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전망(45.8%)과 적성(36.7%)에 맞아서 선택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0%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	N	percentage (%)
Sex		Male	147	22.6
		Female	504	77.4
Age		Mean ± SD	20.63 ± 1.99	
Major	Health science	Nursing	132	20.3
		Physical therapy	69	10.6
		Occupational therapy	164	25.2
		Dental hygiene	75	11.5
	Non-Health science	Beauty art and skin care	26	4.0
		security service & secretary	51	7.8
		media creative writing	48	7.4
		airline cabin services management	86	13.2
Grade		1	270	41.5
		2	38	5.8
		3	190	29.2
		4	153	23.5
religion		catholic	181	27.8
		Protestantism	54	8.3
		Buddhism	49	7.5
		no religion	367	56.4
reason for selection of my major		aptitude	239	36.7
		suggestion of others	96	14.7
		employment prospect	298	45.8
		voluntary service	18	2.8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very satisfying	104	16.0
		satisfying	462	71.0
		unsatisfying	74	11.4
		very unsatisfying	11	1.7

3.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특성

본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조사에서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 '가끔 혼동된다'고 한 경우는 31.3%로 나타났으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경우는 21.8%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39.2%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4.7%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5.4%로 매우 높았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경우에는 대학교양강

좌(34.7%)나 전문가 특강(35.8%)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경우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Biomedical ethic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	N	percentage (%)
ethical values	very firm	131	20.1
	often confused	204	31.3
	change on some occasion	305	46.9
	inappropriate to the real situation	11	1.7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very much aware	82	12.6
	a little aware	410	63.0
	have a familiar ring	142	21.8
	no concern	17	2.6
information resources of biomedical ethics	TV	255	39.2
	book, newspaper, journal	63	9.7
	lectures of college	93	14.3
	internet	226	34.7
	others	14	2.2
importance of biomedical ethics	very important	212	32.6
	important	409	62.8
	not important	13	2.0
	no concern	17	2.6
education methods of biomedical ethics	cultural studies in university	226	34.7
	major courses in university	105	16.1
	special lecture of professional master	233	35.8
	internet class	26	4.0
	others(pamplet etc.)	61	9.4
attendance intention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476	73.1
	no	86	13.2
	no concern	89	13.7

3.3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 인식정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6.55이고, 생명의료윤리 인식정도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평균 3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이 평균 17.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 esteem

domain	minimum	maximum	Mean ± SD
self-esteem	10	38	26.55±2.420
induced abortion	7	24	17.18±2.106
euthanasia	18	48	33.41±3.874
brain death	8	20	13.81±2.077
biotechnology	8	24	16.10±2.632

3.4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 인식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인간생명공학에 대한 인식 정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self-esteem and biomedical ethical ethics

domain	self-esteem	induced abortion	euthanasia	brain death
induced abortion	.246**			
euthanasia	.331**	.280**		
brain death	.380**	.347**	.433**	
biotechnology	.225**	.221**	.314**	.354**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 인식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인간생명공학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찬성하였으며, 안락사, 뇌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인식 정도는 3학년과 4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및 종교에 따라서는 자존감과 생명의료윤리 인식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Difference of self-esteem and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self esteem	induced abortion	euthanasia	brain death	bio-technology
sex	.137	.034** (M<F)	.005** (M>F)	.127	.005** (M>F)
major	.083	.644	.395	.778	.977
grade	.679	.448	.023** (3<4)	.188	.639
religion	.382	.873	.516	.715	.379

3.6 생명윤리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생명의료윤리 인식차이

본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리의식, 안락사, 뇌사, 생명공학에 대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명의료 윤리인식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인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생명의료 윤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Difference of self-estee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by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self esteem	induced abortion	euthanasia	brain death	bio-technology
ethical values	very firm often confused change on some occasion inappropriate to the real situation	1.496 (.213)	.154 (.927)	2.614 (.049)	.905 (.438)	1.080 (.356)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very much aware(a) a little aware(b) have a familiar ring(c) no concern(d)	2.120 (.095)	1.387 (.245)	4.322 (.005) (a>b,c)	2.027 (.108)	2.005 (.111)
importance of biomedical ethics	very important(a) important(b) not important(c) no concern(d)	3.942 (.008) (a>b.c)	.364 (.779)	.873 (.454)	.687 (.560)	.447 (.719)

3.7 생명의료윤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명의료윤리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Factors that impact biomedical ethics

domain	B	Beta	T	p
self-esteem	.031	.114	2.918	.004
induced abortion	-..17	-.054	-1.273	.203
euthanasia	-.007	-.039	-.889	.374
brain death	-.015	-.048	-1.041	.298
biotechnology	.002	.008	.177	.860
Adjusted R2		.152		
model fit		F=3.061, p=.010*		

3.8 생명윤리 정보 및 교육관련 항목간 상관관계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제공방법과 교육참석의사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Correlation of self-esteem and biomedical ethicsl ethics

domain	information resource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method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methods of biomedical ethics	0.37	
attendance intention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0.001	0.176**

4.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대한 생명의료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생명의료윤리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존감은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대학생이 생명의료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생명의료윤리 인식을 비교한 결과 생명공학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안락사, 뇌사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현숙[17] 연구와 조민경[18]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이전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실시한 대상자들이거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보건계열 대학생들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안락사를 제외한 뇌사 혹은 생명공학,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학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정보를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으나 그 외 뇌사나 생명공학 등에 관한 윤리적 정보는 접할 기회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적 태도로서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특성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구조와 개인의 경험에 의해 변화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19]. 김영인[20]의 연구에서 치위생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도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윤리성향과도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생명의료윤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추후 생명의료윤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경우,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한 학생들이 더욱 이전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 판단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21], 김인순[22] 연구에서는 개인 도덕성이 생명윤리의식에 더 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지속적인 생명의료윤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존감 뿐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 접근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각적 접근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교육이 졸업 후 실제 직무만족과 직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전공계열별 대학생의 생명의료 인식에 관해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생명의료윤리 인식뿐 아니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중요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생명의료윤리 인식을 비교한 결과 생명공학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안락사, 뇌사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CKNOWLEDGMENTS

Corresponding Author: Kyoung-Young Park
Email: reliance80@jwu.ac.kr

REFERENCES

[1] Ha-yun Jung, Kwuy-im Jung,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 No. 4, pp. 37-48, 2012.

[2] Young-mo Gu, Biomedical ethics. Paju: Dongnyok Press, 1999.

[3] Mi-soon Jeon, Seul-gi Byun, Na-young Seong, Mi-ra Yang, Hye-ran Yang, Hwa-eum, “Comparison of biomedical ethic affilated with health and non-health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4, No. 2, pp. 25-31, 2014.

[4] Hye-young Ahn, Byung-sun Cho, Sook-heui Choi, Won Choi, Yu-mee Go, “Boieht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1-13, 2008.

[5] Yun-hee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262-272, 2009.

[6] Mi-hye Lim, Chang-seung Park,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423-4431, 2014.

[7] Yong-soon Ahn, Ji-hyoung Han, Ki-eun Kim,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personality types on bioethical perception”, The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Science, Vol. 13, No. 3, pp. 347-353, 2013.

[8] Mi-yong Moon, Mi-Kyung Jeon, Ae-hwa Jau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14, No. 1, pp. 27-47, 2013.

[9] Choi Jin Yi, Hwang In Young, Park Young Mi, “Relationship among Sense of Humor, Self-esteem, and Performance in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1, No. 1, pp.

10-17, 2011.

[10] Kim Young Shin,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therapists' collective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 15, No. 2, pp. 1-20, 2013.

[11] Rosenberg. M., Society and ad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2] Su-jin Lee, "Impact of self-esteem and efficacy on ethical consciousness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n daycare teachers", Master of Art, Namseoul University, 2014.

[13] Ji won Lee, Kyung-hee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estt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14] Young-sook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Master of Science thesis, Chung-Ang University, 1990.

[15] Bo-ram Choi, "A study on the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of the paramedic students", Master of Science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0.

[16] Byong-je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Collection of Writings, Vol. 11, No. 1, pp. 107-130. 1974.

[17] Hyen-sook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ru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3, pp. 401-410, 2011.

[18] Mee-kyung Cho,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4, pp. 311-320, 2013.

[19] Ja-young Lee, Suk-kyung Nam, Mi-kyoung Lee, Ji=hee Lee, Sang-min le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 pp. 173-189, 2009.

[20] Young=in Kim, "The effect of ethics position and self-esteem in dental hygience students on their perception of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Master of Science thesis, Hanseo University, 2014.

[21] Myung-sook Yoo, Ki-cheul Shon, " Effects of nursing eht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12, No. 2, pp. 61-76, 2012.

[22] In-soon Kim,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14, No. 1, pp. 1-13, 2013.

저자소개

박 소 연(So-Yeon Park) [정회원]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책 및 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근골격계작업치료, 직업재활, 인간공학

박 경 영(Kyoung-young Park)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재활학과 (이학석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재활학과 (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